

<b>I 진화하는 신체관, 변화하는 질병관</b>	<b>15</b>
1. 질병관의 변천(變遷)과 병리학의 발전 - 지제근(서울대학교 명예교수)	16
1) 질병관 변천의 개관	17
2) 병리학(病理學)의 발전	19
(1) 히포크라테스시대의 병리학	19
(2) 갈렌과 중세시대	22
(3) 르네상스의 병리학	23
(4) 17세기의 병리학	25
(5) 18세기 병리학과 모르가니(Morgagni)	26
(6) 19세기 초 파리학파 병리학	28
(7) 19세기 전반의 영국 병리학	30
(8) 로키타스키의 병리학	33
(9) 19세기 후반의 비르호의 병리학	35
(10) 세균학과 면역학의 발달	38
(11) 20세기 이후의 병리학	40
3) 미국의 병리학	41
4) 일본의 병리학	42
5) 한국의 병리학	43

<b>II 의학의 전환, 수술의 혁신</b>	<b>45</b>
1. 수술법의 확립과 혈액에 대한 새로운 이해 - 예병일(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46
(1) 혈액관의 변화에 따른 의학의 발전	47
(2) 피의 은유와 고대인들의 혈액관	47
(3) 사체액설이 낡은 치료법, 사혈	50
(4) 혈액은 사라지지 않는다. 인체를 순환하고 있을 뿐이다	54
(5) 혈액순환설 이후의 혈액관	59
(6) 혈압의 숫자화와 의학의 과학화	62
(7) 수혈법의 발전	65
(8) 혈액형 바로 알기	69
(9) 혈액형으로 과연 사람의 성격이나 다른 특성을 구분지을 수 있을까?	73
2. 통증의 조절과 신체관의 진화 - 강신익(부산대학교 치의과대학원)	75
(1) 병원, 세상의 고통이 모이는 곳	77
(2) 고뇌하는 통증의 정복자들	79
(3) 앞서 가는 자의 고통	82
(4) 고통의 역사	84
(5) 통증의 과학	89
(6) 경험으로서의 통증과 고통	92

(7) 플라시보 또는 의미반응	95
(8) 플라시보의 과학	98
(9) 신체관의 진화	104
(10) 공간: 통증의 공적(公的) 영역	106
(11) 통증의 문화-생물학 (Cultural Biology of Pain) 또는 체화된 인지	109
(12) 결론: 말할 수 없는 것들의 증언	111

3. 소독원칙의 확립과 수술의 혁신  
- 최은경(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역사문화원) 115

(1) 들어가며	116
(2) 상처 치료의 역사-소독법의 확립 이전	118
(3) 질병과 상처-장기 이론의 해석	121
(4) 병원의 가장 큰 문제-병원 질환(Hospitalism)	123
(5) 세균 이론(Germ theory)의 새로운 발전	126
(6) 소독법의 확립과 리스터의 공헌	130
(7) 소독법을 둘러싼 논쟁과 수용	136
(8) 청결법과의 경합과 정착	140
(9) 새로운 수술장의 시작	143
(10) 나가며	145
*참고문헌	147

III 근대에서 현대로-20세기 의학의 도약 149

1. 영상기술과 질병의 시각적 재현  
- 황임경(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150

(1) 들어가는 말	151
(2) 메스 없이 몸 안을 들여다 보다-엑스선	156
(3) 더욱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몸-CT, MRI	161
(4) 몸 안에서 몸 밖으로-PET	168
(5) 소리를 보다-US	171
(6) 몸 안으로의 여행-내시경	175
(7) 의료영상기술의 문화적 함의와 예술적 변용	178
*참고문헌	185

2. 유전학과 의료의 혁신: 유전학의 출현  
- 저자: Robert Olby / 역자: 최은경 186

(1) 유전학자(The Hereditarians)	189
(2) 사육자들과 갑종학자들	192
(3) 멘델의 실험	196
(4) 멘델의 연구 발견	199
(5) 인간에서의 유전	201
(6) 학제로서의 유전학	206